

월요광장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자박자박 봄비가 온종일 내렸다. 도서관 마당의 키 큰 생강나무도, 율타리를 꺼안은 키 낮은 개나리도, 까치발하듯 꽃대를 올린 수선화도 모두 아스라한 노란빛으로 젖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힌다고 했는데, 도서관의 봄은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열여젖힌다. 후두둑 빗방울처럼 물러온 아이들,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는 저 웃음이야말로 봄이다.

비 오면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 삼아서, 때로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서, 대체로 두런두런한 사람들 기운이 그리워서, 뭐니 뭐니 해도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서 도서관을 찾는다.

“우산이 없어요. 비슷한 게 있긴 한데 내건 아니예요.” 난감한 표정의 아이를 따라 신발장 옆까지 가본다. 수많은 우산을 하나하나 들춰 봐도 자기 우산이 아니

도서관의 봄

다.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이 된 기분으로 금우산을 건네주고 싶어진다. 이미 확인한 터지만 바깥에 깔려 있을지 모르니 다시 찾아보자고 같이 우산들을 뒤졌다. “어떡하니, 우산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라도 쓰고 가야 하지 않을까? 비 맞지 말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한 아이는 살 하나 부러진 우산을 들고 빗속을 뚫뚫 걸어갔다.

며칠 전엔 5학년 여자아이가 엉엉 울면서 데스크로 달려왔다. 어쩌나 크게 우는 지 도서관 직원들도 모두 놀랐다. “별한데 쓰였어요. 엄마아아...” 이미 눈물범벅이 된 아이는 엄청 놀란 상태. 목덜미가 동그랗게 부어올랐다. 공원에서 놀다가 물렸단다. 말벌은 아니어서 일단 다행. 우선 엄마랑 통화하게 번호를 불러 보라 하고 상황을 알렸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더 크게 울었다. 일하는 엄마도 안절부절,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 다시 연락을 하기로 했다. 맘에 쏘든 머리를 고무줄로 묶어주고 땀뿜 같은 눈물을 뉘어 주었다. 물론 자리를 자주 만지면 안 된다며 일러주니 안정을 되찾았다. “벌들이 꽃을 알아보네. 네가 이렇게 예쁘니 말야.” 농담을 건넬니 씨익 웃는다. 진정이 되었다는 표시다. 같이 병원 갈까 했더니 걱정하며 달려온 친구들이랑 다녀오겠다고 의젓하게 떠났다.

어디 이뿐이라. 맨발로 뛰어나다다 가시 박혀서 빼 달라고 오고, 친구가 숨긴 신발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고, 잠깐 책임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라졌다고 울고,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잘못해 씻겨 달라고 하고, 남아져 상처 나면 소독약과 반창고를 달라고 오고, 대나무숲에 남겨진 아기 고양이를 구해 달라고 뛰어온다. 물론,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서가 위치를 못 찾아 도와 달라고 말을 거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때마다 생각한다. 놀라고 당황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밀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아이들의 비발 언덕과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면 어린이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시시콜콜한 요청들에 정신없이 답하면서 이제는 알 것 같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어 줄 누군가라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우산을 같이 찾아봐 주고, 발에 쏘이고 놀랐을 때 달래 주고, 배고픈 고양이를 같이 걱정해 주고, 날마다 고양이га 잘 지내는지 물어서 지켜봐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곁을 나누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곁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이 되지 못한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1073일, 죽음과 고통의 봄을 세 번이나 새로 마주하고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니 눈물이 솟구친다. 목이 메어 말을 건낼 수가 없다. 숨죽이며 지켜보는 마음도 이러한데 저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아이를 구하고자 몸부림쥔던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말하지 못하던 것, 말하지 않은 것,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경청이라고 배웠다. 건져 올려진 세월호 앞에서 부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원한다. 너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말을 거는 순간 비로소 ‘남’은 ‘나’가 된다. 그러면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다시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곁이 생겨나면 편만 강요하는 사회를 이겨 내는 힘도 여기서 나올 것이다. 경청은 고통의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존재감을 돌려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호 3년상을 치른다. 무력함에 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쫓으로 피어 누구도 외롭지 않다고 말해 주는 일일 것이다. 기억의 숲에서 흘린 눈물이 연대와 책임 의식으로 피어나도록 서로 기꺼이 돌봐 주는 일일 것이다. 바라봄, 돌봄, 들어다봄... 그래서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는 봄이기를!

社 說

세월호 인양 성공 이제 진실도 건져 올려야

세월호가 인양 시도 사흘 만에 완전히 수면위로 올라왔다. 선체를 받치고 있는 반잠수선도 여체 9m 높이까지 부양했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앞으로 2~4일 동안 배수와 잔존유 처리를 마치면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하게 된다. 오는 28일 전후로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을 지켜본 유족과 국민들은 인양 성공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실시간으로 인양 과정을 지켜본 유족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또 다시 느끼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은 목포신항 이동 후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민도 SNS상을 통해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체 인양과 함께 진실도 함께 인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면서도 사흘

이런 끝날 인양을 3년이나 걸린 데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제 의혹을 푸는 방법은 철저한 진상 조사밖에 없다. 미수습자 수습이 우선이겠지만 선체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의도적으로 인양을 늦추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지우는 길이다.

다행히 국회와 유가족 대표들이 선출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선체 수습 과정 점검은 물론 자료 제출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해산된 2기 특조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만 말고 특조위에 강력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서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순자 씨 부부 자기들도 5·18 희생자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씨의 자서전이 지난해 발간됐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이 자서전에는 12·12 사태, 6·29 선언, 5·18 광주민중화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서전에는 역사적 평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주장이 담겨 있다. 특히 전두환·이순자 씨 부부가 자기들도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선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자서전에는 이순자 씨가 1996년 재판 당시 한 스님에게 5·18 희생자 224명의 영가천도(靈駕薦度·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 기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지만, 그런 명분이 그 큰 슬픔 앞에서 뭐 그리 중요하겠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게다가 최규하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강압으로 퇴진했다는 것과 관련해

서도 “오호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돼 줄 것을 권유했다”며 “남편이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권유를 받아들여기로 한 것은 ‘당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전 사장관뿐’이라는 최 전 대통령 판단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생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아무런 증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씨는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표 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책 전반에 걸쳐 단호하게 부정했다. 문제는 12·12 쿠데타의 주범이자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역사가 기록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도 내달 출간된다는 점이다. 권력 찬탈 과정에 대해 또 어떤 역사 왜곡을 자행할지 그들의 자서전 출간 소식을 듣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無 等 鼓

최근 수개월 동안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농단’이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단어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이제 초등생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선이 다가오면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있으니 ‘뺑뺑’이라는 단어다. 이 말은 약 50년 전인 1970년대 신문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속어인 ‘뺑뺑’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돈 가운데 일부

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를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

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그만 돈을 빼낸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1970년 4월28일, YMCA에서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주최로 ‘버스 여차장의 뺑뺑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시 버스에는 요금을 받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을 ‘여차장’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월급이 워낙 적어 요금 중 일부를 빼내서(뺑뺑)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일반화돼 있었다. 버스 회사들은 뺑뺑한 돈을 찾기 위해 알몸 수색까지 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차장들이 수치심으로 자

“뺑뺑”의 어원은 화

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름 ‘쌈타’에

서 ‘뺑’은 승화(술), 즉

1자를 말한다. 이 ‘뺑’을 가지면, 이른바

죽보인 높은 패를 쥔 확률이 높다. 또

두 장이 똑같은 ‘뺑’은 최고의 패다. 이

뺑과 땅이 합해서 나온 말로 추정된다.

얼마 전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박계를 향해 “권력을 중심으로 뺑뺑 좀 쳐 볼까 하거나, 공천이나 자리를 받아 볼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전박계 의원들이 뺑뺑 정도의 의도만 갖고 있었다면 최순실에 의해 대통령이나 국정이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법조칼럼



류 봉 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며칠 전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들을 밤에 겨우 재우고, 아내와 나는 번갈아 밤을 새우며 아들의 체온을 확인하며 물수건으로 아들의 몸을 닦아 열을 내리도록 하자고 약속했다. 아내의 약속을 잘 지켰고 교대할 시간이 되어 나를 깨웠는데, 나는 잠에서 깨지 못한 채 계속 잠을 잤다. 결국, 아내가 밤을 새워 내가 할 몫까지 다 하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깬 나는, 잠을 자지 못해 지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무척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모두가 알다시피, 법은 최소한의 도덕

기 고



이 은 방
광주시의회 의장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루선의 ‘길’에 대한 명언이다. 루선의 말처럼 희망과 길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걸으면 길이 되고 오랫동안 걷지 않으면 길은 사라진다. 움직이지 않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걷지 않으면 길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길은 새로운 세계로 걸어가는 것이다. 길은 소통의 수단이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발걸음 트고 이어준다. 우리는 길을 통해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접촉하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간과 세상에 대한 지배력

희망과 소통의 길, 개통 서둘러야

을 늘려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길에는 소통하는 삶의 지혜와 생명의 힘이 부족하다.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축의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이다.

필자는 네발에서 진료봉사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대구 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축의 교통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이다.

내륙철도 건설을 계기로 광주~대구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철도건설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꾸려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양 시 의회는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개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역량결집을 위해 의회 간 ‘합동토론회 정례적 개최’와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현재 광주~대구간의 고속도로는 2015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교통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

을 하고 있지만 도로 하나만으론 지역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어렵고 산업물동량 처리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넘어 철도를 뚫어 동서 간 통행로를 다변화하고 물리적 거리를 좁혀 나가기 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동서 물류수송을 위해 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서해안 공업지대와 경북 내륙공업지대·동해안 중공업지대까지 연계시켜 새로운 남북연계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복안에서 마련된 계획안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산이 단 한 푼 반영되지 않은 채 또다시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남았다.

동서화합과 지역소통, 국토균형 발전과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측면에서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은 절실하다. 당초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고령~대구 달성(191.6km)을 단선전철로 연결한다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진된 바 있다.

우리의 염원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점차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

선·호남선·경전선·전라선 등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라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서광주역에서 경전선 기차에 올라 지리산 골짜기를 찾아 나섰다. 기차길은 우리들에게 많은 추억의 보따리를 풀게 한다. 불빛이 등성처럼 시골 마을과 한적한 들녘을 바라보며 설레고 들쭉던 아간열차에 대한 아련함은 첫사랑의 느낌과도 비교될 만하다.

어둠에 갇든 창밖을 바라보며 좌석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상념에 젖어 들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설렘의 길, 배움의 길, 깨달음의 길이 있지만 빛고를 광주의 길에는 발전과 시민행복의 길이 있어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아피아가도와 같이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속히 개통되어 흥통과 번영에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루선의 말처럼 시민의 뜻이 모이고 달빛동맹이 결집하면 광주~대구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는 빠르게 생겨날 것이다.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동·서간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역과 문화가 왕성히 소통하는 국토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길이 될 것이다.